

SETUP REPORT



강성훈 앵콜 콘서트

THE GENTLE ENCORE

by 정형우 기자 repwoo@naver.com photos by 김용일 팀장 waxe1018@hotmail.com
data form (주)테크데이터 tdpro.co.kr

강성훈 앵콜 콘서트 'The Gentle Encore'가 지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KBS 아레나에서 펼쳐졌다. 세계 각국에서 강성훈을 보기 위해 몰려든 KBS 아레나는 오후 6시가 가까워질수록 북적거리기 시작했으며, 비가 오락가락 하는 곳은 날씨에 팬들이 대기할 곳까지 마련해준 강성훈 측의 배려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회자됐다. 공연이 시작되고 화려한 레이저 퍼포먼스와 함께 강성훈이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1세대 아이돌의 상징인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 강성훈은 여전한 가창력과 춤 실력을 뽐냈으며, 팬들은 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눈을 떼지 못했다.

〈그대만은〉, 〈오직 너〉, 〈Lady〉, 〈영원히〉와 같은 발라드 곡을 비롯해 〈My Girl〉, 〈영딩이가 예뻐요〉 등의 댄스곡도 선보였으며, 〈트리블 메이커〉와 같은 커버곡을 통해 파격적인 모습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번 'The Gentle Encore'는 지난 6월 9일 진행된 강성훈 솔로 데뷔 17주년 기념으로 열린 'The Gentle'의 앵콜 공연이다. 특히, 팬들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만큼 약 180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강성훈과 그의 팬들이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을 만들었다.

JBL의 최신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설치되다

이번 강성훈 콘서트의 음향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그린음향이 맡았으며, 메인 스피커, 앰프 지원과 세팅은 (주)테크데이터가 진행했다. 이번 공연의 특징으로는 JBL사의 최신 라인 어레이 스피커인 JBL VTX A12가 리깅된 것이다. 수량이 많은 편으로 메인 스피커 JBL VTX A12가 12개씩 L/R 총 24개 리



강했으며, 서브우퍼는 JBL VTX G28이 4개씩 L/R 그라운드 스택됐다. VTX A12는 JBL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플래그십 라인 어레이 스피커이다. 기존 V25와 V20의 중간 사이즈인 듀얼 12인치로 디자인 된 모델로써, 고역 부분은 V20, V25와는 다르게 HF 페이징 플러그와 웨이브가이드를 하나의 부품으로 결합하여 왜곡 및 전반적인 무게를 줄이면서 향상된 감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JBL 2423K가 사용됐다. 중역 부분은 4개의 5.5인치 우퍼 JBL 2165H가 사용되었으며 개선된 RBI(Radiation Boundary Integrator)를 통해 V20, V25보다 개선된 수평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시스템 지원을 맡은 테크데이터 최승우 과장은 “이 개선된 RBI를 통해 3rd Harmonic Distortion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90도의 수평 커버리지 내에서 +/- 5dB의 우수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게 디자인 된 스피커”라며, “또한 110Hz까지 패턴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동급 최고의 스펙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12의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리깅 부분”이라며 “자동잠금장치를 활용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설치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설정과 정밀한 구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앰프는 Crown iTech 4x3500 VRack이 총 4개 랙으로 설치됐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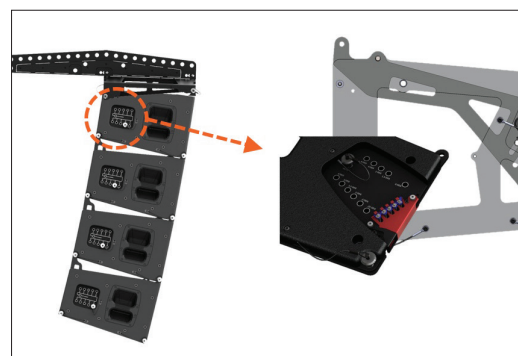


메인 스피커는 JBL VTX A12가 L/R 12개씩 총 24개 라인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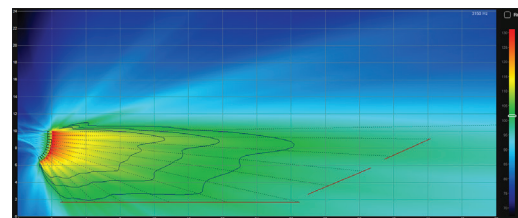
4x12000이 2개 랙으로 설치돼 Quad Amp, 2 Cabinet Circuit으로 구성했다. 최승우 과장은 “4x3500 앰프는 DSP가 내장 되어 JBL Performance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메인 스피커 시스템 튜닝

강성훈 콘서트에서 음향 시스템 설치 여건은 Audience 앞 선과 스피커 앞 선이 불과 1미터밖에 안 될 정도로 Audience가 무대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또한 프론트 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 마지막 4통의 각도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승우 과장은 “이에 따라 가장 아래 2개의 서킷에 Throw Distance Compensation Filter(High Shelving Filter)를 적용하여 HF Calibration을 진행했다”며 “또한 최근 업데이트된 버전 프리셋을 적용하였을 때 캐비닛 수량에 따른 Low Frequency Buildup이 생각보다 적어 Array Size Compensation Filter(Low Shelving Filter)를 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총 3개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중고역대는 기본 프리셋 만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리스폰스를 얻을 수 있었기에 공간에서 부스트 되는 중저역의 몇몇 포인트만 정리하면 될 정도로 튜닝 과정이 간단했다”고 설명했다. 



JBL VTX A12의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리깅 부분으로 자동잠금 장치를 활용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설치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설정과 정밀한 구성을 제공한다



Line Array Calcu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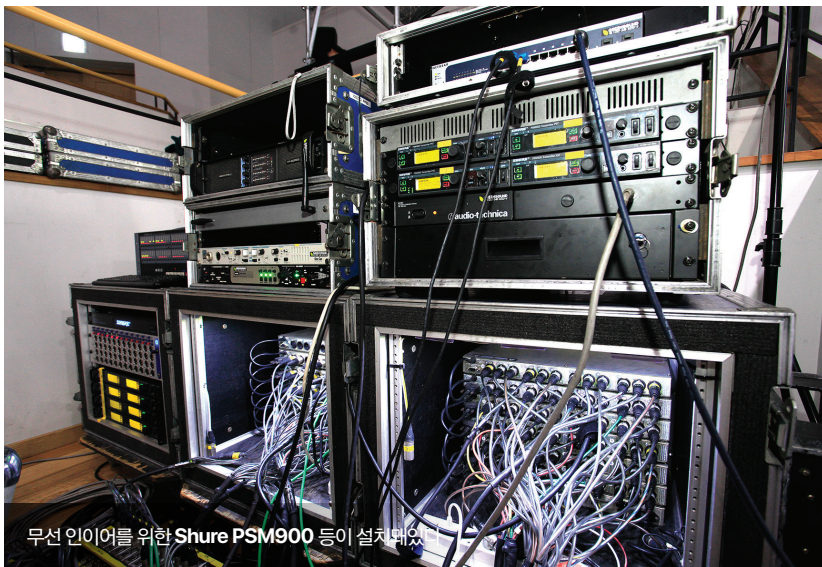
모니터 오퍼레이션을 맡은
그린음향 이강민 엔지니어



무선 마이크는
Shure 사의 제품이 사용됐다



앰프는 Crown iTech 4x3500 VRack이 총 4개 랙으로 설치됐
으며 4x12000이 2개 랙으로 설치돼 Quad Amp, 2 Cabinet
Circuit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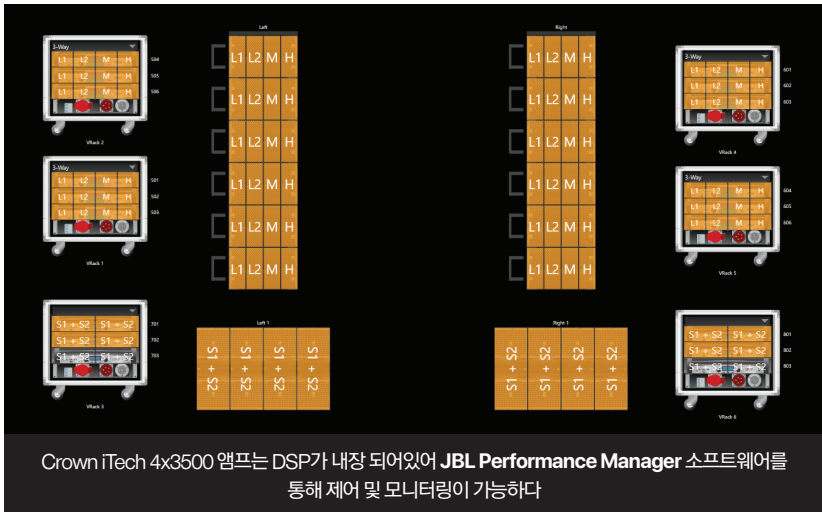
무선 인이어를 위한 Shure PSM900 등이 설치됐다



악기 연주자를 위한 퍼스널 인이어 모니터로
AVIOM A3600이 제공됐다



다양한 악기가 라이브로 연주됐다



Crown iTech 4x3500 앰프는 DSP가 내장 되어있어 JBL Performance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ETUP REPORT

INTERVIEW ● 메인 음향 엔지니어 ● 그린음향 박성철 차장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린음향 박성철 차장입니다. 이번 강성훈 콘서트에서는 음향의 전반적인 디렉터 겸 하우스 엔지니어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린음향이 이번 공연에서 맡은 역할이 궁금합니다.

그린음향이 전반적인 음향 시스템을 맡았으며, 지난 강성훈 콘서트 때 테크데이터에 JBL VTX A12 데모를 요청하여 이번 콘서트 때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스피커 세팅 및 튜닝은 테크데이터 최승우 과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셋업을 진행하셨는지요?

공연장소인 KBS 아레나 1체육관 좌석 특성상 양쪽 3층 객석이 정면 객석보다 많이 높아서 맨 위까지 커버하게 되면 정면의 벽면에 반사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타협점을 찾고 스탠딩의 맨 앞줄이 스피커 플라잉 포인트에서 1~2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래 쪽 캐비닛 부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우스 부스 시스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메인 콘솔은 Yamaha M7CL을 사용했습니다. 특이사항은 가수 인이어 시스템 운영을 하우스 콘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강성훈 씨와 저번 공연도 함께 진행했던 만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은 콘솔에서 제공되는 기본 플러그인만 사용했습니다. 이번 공연엔 외부 플러그인 사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믹싱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KBS 아레나 홀은 반사음과 잔향이 심한 편입니다. 거기다 강성훈 씨가 리버브를 선호는 성향이라 리허설 당시 일명 목욕탕 사운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공연 때는 선명한 목소리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 어떠셨나요?

그린음향은 방송 쪽 일에 비중이 커서 개인 콘서트같은 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수에만 집중해서 그 가수에 맞는 공연을 준비한다는 게 좀 낯설었습니다만 가수와 밴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분위기 좋은 공연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